

PC방 사장님 20곳 실태 리포트

바로웍스 AROA

2026년 7월

PC방 사장님 20곳 실태 리포트

다른 매장은 주휴수당, 대타, 급여를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나

2026년 7월 · 바로웍스

조사 기간 2026년 7월 22일 ~ 23일 · 응답 20명 (전원 PC방 운영) ·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
에 답해주신 사장님들께 약속드린 리포트입니다. 읽고 버리셔도 됩니다. 다만 ”우리 매장만 이
런가” 싶었던 것들이 대체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한 장 요약

#	발견	수치
1	대타를 못 구해 사장님 직접 매장에 들어간 적이 있다	12명 / 14명 (85.7%)
2	주휴수당을 주 15시간 미만 스케줄로 피한다	8명 (40%)
3	출퇴근을 수기 장부·달력에 남긴다	10명 (50%) — 앱 사용은 3명뿐
4	세무사에게 보낼 자료를 매달 다시 만든다	7명 / 14명 (50%)
5	직원 관리 앱에 월 1만 원 이하만 낼 수 있다	14명 (70%)

가장 눈에 띈 건 1번입니다. 사장님들이 꿈은 최대 스트레스는 급여도, 세무도, 청소도 아니었습
니다. **사람이 안 나오는 것**이었습니다.

Part 1 · 누가 답했나

직원 수 — 3~5명 5곳 · 6~10명 10곳 · 11~15명 4곳 · 16명 이상 1곳 운영 기간 — 5년 이
상 12곳(60%) · 3~5년 2곳 · 1~3년 3곳 · 1년 미만 3곳 **사장님이 매장에 있는 시간** — 하루
몇 시간 9곳 · 거의 상주 4곳 · 주 2~3번 4곳 · 거의 못 간다 3곳

절반 이상이 5년 넘게 운영한 베테랑입니다. 그리고 **20곳 중 16곳은 사장님이 매장에 상주하지
않습니다.**

Part 2 ·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

출퇴근 기록 — 절반이 아직 수기 (복수응답)

방식	응답
수기 장부·달력	10명 (50%)
카톡으로 보고받는다	5명 (25%)
포스 / PC방 관리 프로그램	5명 (25%)
따로 안 남긴다	3명 (15%)
출퇴근 앱을 쓴다	3명 (15%)

출퇴근 앱을 쓰는 사장님은 20명 중 3명뿐이었습니다. 그중 한 분이 남긴 이유가 이겁니다.

“통합관리가 안 됨. 앱마다 정확하지 않음.”

기록을 아예 안 남기는 곳도 3곳(15%) 있었습니다.

급여 — 절반이 직접 엑셀로, 대신 오래 걸리진 않는다

누가 계산하나	응답
내가 직접 엑셀로	10명 (50%)
세무사·노무사에게 맡긴다	6명 (30%)
직접 수기·계산기로	1명
앱·프로그램이 계산한다	1명
기타 (엑셀+직원 작성, AI 활용)	2명

한 달 급여 정리에 드는 시간 — 30분 이내 10명(50%) · 1 ~ 2시간 7명(35%) · 반나절 2명 (10%)

의외의 결과입니다. “급여 계산에 하루 종일 걸린다”는 곳은 **한 곳도 없었습니다**. 대부분 이미 자기 방식대로 30분 ~ 2시간 안에 끝냅니다. 급여 자체보다, 그 앞단에서 기록이 꼬이는 게 진짜 부담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.

주휴수당 — 40%는 아예 발생하지 않게 짤다

어떻게 하고 있나	응답
정확히 계산해서 준다	11명 (55%)
주 15시간 안 넘게 스케줄을 짤다	8명 (40%)
대충 없어서 준다	1명 (5%)
솔직히 잘 모른다	0명

”솔직히 모른다”를 고른 분은 없었습니다. 다들 알고 있고, **알기 때문에 40%는 15시간 미만으로 쪼갭니다**.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라 스케줄 설계 문제입니다.

청소·마감 확인 — 70%는 직접 눈으로 (복수응답)

직접 가서 눈으로 14명(70%) · 카톡 사진 보고 9명(45%) · 단톡방 공지만 7명(35%) · 체크리스트 앱 3명(15%) · 확인 못 하고 있다 1명

매장에 상주하지 않는 사장님이 16명인데, 확인 방법 1위는 “직접 가서 눈으로”입니다. 이 간극이 그대로 스트레스가 됩니다.

Part 3 · 최근 6개월에 실제로 벌어진 일

이 문항에 답한 14명 기준입니다.

겪은 일	응답
대타 구할 사람이 없어 내가 대신 나갔다	12명 (85.7%)
세무사에게 보낼 출퇴근·급여 자료를 매달 다시 만든다	7명 (50%)
단독에 올린 공지를 직원이 “못 봤다”고 했다	6명 (42.9%)
대타 댄 날 기록이 꼬여서 급여를 다시 계산했다	4명 (28.6%)
근로계약서를 아직 안 쓴 직원이 있다	1명 (7.1%)
해당 없음	0명

”해당 없음”을 고른 사장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.

그래서 무엇을 잃었나 (서술형 19명)

가장 많이 나온 단어 순서대로 — 시간 · 잠 · 돈 · 건강 · 정신건강. 금액을 적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. “100만 원”, “매달 5 ~ 10만 원”, “대타 시급 2천 원씩 추가”.

Part 4 · 사장님들의 말

응답자 본인이 익명 게재에 동의한 답변만 그대로 옮겼습니다. 맞춤법도 손대지 않았습니다.

”야간 근무자가 갑작스레 퇴사하여, 새로운 야간 알바가 구해질 때까지 3주간 야간 대타를 직접 뛰었다.” — 11 ~ 15명 규모, 5년 이상 운영

”인적관리가 제일 스트레스다. 직원들 스케줄 맞춰줘야 하고, 보건증, 계약서까지 신경써야 하며, 한가한 시간에 알바들이 해야할 것들(체크리스트) 안하고 그냥 앉아만 있고, 애네가 뭘 했는지 내가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좀 그렇다.” — 11 ~ 15명 규모, 5년 이상 운영

”마감 청소할때마다 사진찍어서 매일 카톡에 보고하라고 했었는데, 애들도 스트레스고 나도 스트레스고 해서 그냥 일단 말로만 잘 시켜.” — 같은 사장님. 사진 보고를 도입했다가 되돌린 사례입니다.

”아르바이트생들 아무리 교육 잘해도 시재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매달 5~10만원 정도 손해 보는 느낌.” ”벌금제도 도입했고 CCTV를 돌려봐도 현장에 있는 건 근로자들이기에 화면상으로는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이 안 됨.” — 11~15명 규모, 5년 이상 운영

”알바가 금고돈 들고튀어서 경찰 신고 후 합의봄.” — 6~10명 규모, 3~5년 운영

”퇴직금 조건, 주휴수당 조건, 야간수당, 주말수당 등 알바가 잘못된 정보로 노동부 고발. 결국 해당 조건이 안 됨으로 사장만 왔다갔다하고 시간 허비, 스트레스, 그동안의 서류·자료 준비 등.” — 16명 이상 규모, 5년 이상 운영

”말없이 안 나오는 게 제일 스트레스죠.” ”CCTV 근데 말을 잘 안 들음. 요새는 뭐라고 하면 관둬버림.” — 6~10명 규모, 5년 이상 운영

”야간알바 구하기 힘드네요. 계속 공고해야죠. 뭐.” — 3~5명 규모, 5년 이상 운영

”주어진 일을 여러 번 말해도 하지 않음.” / 잃은 것: ”다른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아 불만을 토로한.” — 6~10명 규모, 1년 미만 운영

정리하면 세 가지가 반복됩니다. ① 사람이 안 나온다 → ② 내가 메운다 → ③ 관리하려고 규칙·CCTV·벌금을 도입했지만 확인이 안 되거나 직원이 그만둔다.

Part 5 · 그래서 얼마까지 낼 수 있나

”직원 관리를 확실히 해결해 주는 앱이 있다면, 월 얼마까지 낼 수 있으세요?”

지불 의사	응답
0원 (안 쓴다)	4명 (20%)
1만 원 이하	10명 (50%)
1~3만 원	2명 (10%)
3~5만 원	3명 (15%)
5만 원 이상	1명 (5%)

70%가 월 1만 원 이하입니다. 앞에서 “잠을 잃었다”, “100만 원을 잃었다”고 답한 것과 같은 사람들입니다.

이 간극은 인색해서가 아니라고 봅니다. **이미 규칙도, CCTV도, 벌금도, 근태앱도 써봤는데 안 됐기 때문입니다.** 지불 의사가 낮은 게 아니라, 해결된다는 믿음이 낮은 겁니다. 실제로 3만 원 이상 낼 수 있다고 답한 4명은 전부 “겪은 일” 항목을 여러 개 체크한, 문제가 이미 돈으로 환산된 사장님들이었습니다.

이 조사의 한계

정직하게 적습니다.

- **표본 20명**입니다. 통계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.
 - PC방 사장님 오픈채팅방에 링크를 올려 받은 **편의표본**입니다. 애초에 매장 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 - 자기기입식이라 **주휴수당처럼 민감한 문항은 실제보다 보수적으로** 답했을 수 있습니다. “정확히 계산해서 준다” 55%는 실제보다 높게 잡힌 수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
 - 일부 문항은 20명 전원이 아니라 **14명·19명만 응답**했습니다. 해당 표에 기준을 표시했습니다.
-

만든 사람

이 조사는 **바로웍스**가 진행했습니다. PC방을 직접 운영하면서 매장 관리 앱 **AROA**를 만들고 있습니다. 완성된 제품을 팔려고 한 조사가 아니라, 만들고 있는 걸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확인하려고 돌린 조사입니다.

조사 결과 저희가 우선순위를 바꾼 것 두 가지를 공유합니다.

1. **대타·결원 대응을 1순위로 올렸습니다.** 85.7%가 겪은 문제인데 저희는 급여 자동계산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.
2. **세무사 전달 자료 자동화를 앞당깁니다.** 절반이 매달 같은 자료를 다시 만들고 있었습니다.

답변해주신 사장님들, 감사합니다. 기프티콘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

AROA가 어떤 앱인지 궁금하시면 — barohworks.com 1개월 무료체험 · 카드 등록 없이 시작 · 30일 전액 환불 문의 hello@barohworks.com · 0502-1937-8588

본 리포트의 인용문은 응답자가 익명 게재에 동의한 답변만 사용했습니다. 개인·매장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. · © 2026 BAROHWORCS